

## “The Fox”에 나타난 ‘여성의 독립’과 결혼

강 미 숙

1

로렌스의 중단편 가운데 “The Fox”에 대한 비평이 두드러지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 중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증폭한다. 예를 들어 작품의 분량이나 예술적 성취면에서 결코 뒤진다고 하기 힘든 “Daughters of the Vicar”나 “The Captain’s Doll”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제한된 데 비해 “The Fox”는 로렌스 평자라면 누구나 한마디는 거들어야 하는 필수과정처럼 여겨진다. 로렌스의 작품이 그 어느 것도 무난히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님은 조금이라도 눈썰미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사실이지만 유독 이 작품에 집중되는 관심과 논란은 그가 여기서 탐색하는 바가 다양한 해석을 유발하면서도 최근 비평의 지향점을 전면적으로 시험하고 문제삼게 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1921년의 증보, 개작된 판은 작가가 의식한 것처럼 그 전개에 있어 “생소하고 격렬한”<sup>1)</sup> 과정을 겪는다. 1918년 판은 Henry의 다소 갑작스런 청혼이 March에 의해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녀의 오랜 동료 Banford는 씩씩함을 삼키는 것으로 종결되어 비슷한 시기에 쓰인 “You Touched Me”의 전개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세 배가량 길어진 1921년 판은 청혼의 시점에서 긴장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팽팽히 치달으며 Henry에 의한 Banford의 죽음이라는 심상치않은 사건을 포함하게 된다. 더욱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은 여지껏 수동적 인물인양 그려지던 March의 결혼 이후의 태도이다. 이 작품을 “너무나 현대적이고 너무나 새로운”<sup>2)</sup> 것으로 만든 데는 결혼 이후 Henry와 March의 해소되지 않은 갈등을 그 본질까지 파고든 로렌스의 개작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개작된 1921년 판의 “The Fox”에 대한 평가는 “주요 중단편 가운데 최고의 것 중 하나”<sup>3)</sup>라는 호평에서부터 이 시기 작가의 변모한 사상이 반영되어 예술성까지 왜곡한 예라는 진단<sup>4)</sup>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 이 가운데 그 어조에 있어 가장 호전적인 비평으로는 아무래도 여성론의 입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령 Kate Millett는 *Women in Love*(1920) 이후, 로렌스에게 “결혼이 여자 길들이기뿐만 아니라 여자의 소멸까지 의미하게 되는” 작품의 예로 “The Fox”를 든다. Millett에게 주인공 Henry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레즈비언 연

1) *The Letters of D. H. Lawrence*, Vol. IV, ed. Warren Roberts, James T. Boulton & Elisabeth Mansfield(Cambridge: Cambridge UP, 1987) 126면. 이하 *Letters*로 축약한다.

2) *Letters*, Vol. IV, 132면.

3) F.R. Leavis, *D.H. Lawrence: Novelist*(Penguin Books, 1955) 309면.

4) Janice Hubbard Harris, *The Short Fiction of D.H. Lawrence*(New Brunswick, N. J.: Rutgers UP, 1984) 8면, 163-68면 참조.

적을 살해하고, 자신의 “남성적 성취의 세계” 속으로 여자를 초월시키기 위해 여성의 자아상실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폭군이 된다.<sup>5)</sup> Millett이 *Women in Love* 이후 로렌스 소설의 변모를 감지하였듯이 Hilary Simpson은 1차 대전 이후, 구체적으로는 1920년대의 로렌스 사상을 명시적인 ‘anti-feminism’으로 규정한다. Simpson은 전서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인해 남성의 힘이 위축되었고, 이를 서구문명의 위협으로 느낀 로렌스가 급격히 “남성우월주의”로 경도되어 “독립적 여성에 대한 복수”를 수행한다고 진단한다.<sup>6)</sup>

위의 여성론적 논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정신분석학적’ 해석과 더불어 작품을 검토하면서 유념할 부분이지만, 이 시기 로렌스에게 1차 대전이 의미한 바는 Simpson의 주장처럼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1차 대전은 여지껏 진전되던 온전한 존재의 파멸이 좀더 전면적으로 치달은 결과이자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절명의 상태의 시작을 예고하는 그야말로 중대 사건이었다. 로렌스의 이같은 위기의식은 끊임없이 변하는 남자와 여자간의 관계야말로 “인간의 삶에 새롭고 핵심적인 실마리”<sup>7)</sup>라는 생각을 한층 더 견고히 하는 동시에 남녀관계, 특히 그에게 ‘결혼’으로 집약되는 관계의 핵심적 성격을 파고들게 했다. 그러므로, 로렌스의 주요 소설에 나타난 남녀관계를 “남성우월주의와 여성의 종속에 대한 찬사”로 보는 태도가 작품에 대한 왜곡임을 짚어가는 과정은, 그것이 남녀사이의 통념적인 균형이나 평형상태와 어느 만큼 다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 2

이 작품이 실린 *The Complete Short Novels*를 편한 Melissar Partridge는 작품의 배경을 자율적인 세계에 고립된, “비사실적인 자기폐쇄”의 상태로 요약한다.<sup>8)</sup> 인물간의 관계에서 연상되는 신화적 요소나 작품명이기도 한 여우의 이미지를 주요 모티프로 활용하는 정도가 인상적임을 고려하면 작품의 구체적 배경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비사실적 소설로 읽힐 소지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로렌스 소설들이 통상적인 사실주의 소설과 판이하게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언제나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1918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명시하고, 1차 대전의 영향이 외딴 곳의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의 전반적 상황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바에는 더욱 그러하다.<sup>9)</sup>

이런 상황에서 March와 Banford는 전쟁으로 남자들의 일손이 없는 외딴 농장을 힘겹게 꾸러간다. “결혼할 성 싶지 않아” 농장을 연 Banford와 “이곳의 남자 역할”을 도맡은

5) Kate Millett, *Sexual Politics*(Garden City: Doubleday, 1970) 265면.

6) Hilary Simpson, *D.H. Lawrence and Feminism*(Dekalb: Northern Illinois UP, 1982) 70-71면.

7) “Morality and the Novel”, *Phoenix* 531면.

8) *The Complete Short Novels*, ed. Keith Sagar & Melissa Partridge(Harmondsworth: Penguin, 1982) 15면.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에 따르며, 본문 속에 면수만 표시한다.

9) And suddenly, it seemed to him England was little and tight, he felt the landscape was constricted even in the dark, and that there were too many dogs in the night, making a noise like a fence of sound, like a network of English hedges netting the view. He felt the fox didn't have a chance.(170면)

March는 의견상 전통적 여성의 성역할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외적 요소는 일부 평자들로부터 하여금 이들을 “해방된 여성”, 혹은 “신여성”의 이름으로 지칭하게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축을 키우는 농장 일은 생각만큼 만만하지가 않다. 이들은 “다쳐 올 사태가 두려워”(135면) 암소 기르기를 포기하였지만 남은 닭과 오리마저 제때 잡자지도 않을 낳지도 않는다. 농장일이 두 여자를 점점 긴장으로 몰고가자.

벤포드나 마아치 둘다 일만 하고 사는 삶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이면 책을 읽거나 자전거 타기를 하기를 바랬고, 때로 마아치는 초록 바탕의 도자기에 곡선형의 백조를 그려 넣거나, 아니면 정교한 고급가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멋진 난로열 가리개를 만들고 싶어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야릇한 변덕과 만족하지 못한 성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멍청한 닭들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137면)

이처럼 두 여자의 농장생활이 처음부터 고단하고 희망없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자들만의 삶이 애당초 폐쇄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선입관이 개입된 묘사는 아니다. 오히려 March가 일을 할 때나 가축을 돌볼 때 드러나는 이 인물 특유의 상태, 혹은 이런 생활이 그녀에게 부과한 짐의 결과가 농장이나 두 여자친구의 상태를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갔다고 보는 편이 더 온당할 것이다. 특히 March라는 인물 특유의 포착하기 힘든 면모를 섬세하고 집요하게 그리기 위해 작가는 사실적 묘사와 심리적 통찰을 결합한다. March의 크고 깊은 눈이 “야릇하고, 놀란 듯하면서도 수줍고 동시에 냉소적인 빛을 띠고 있다”라든지, 그녀의 입이 “마치 고통과 빈정댐으로 거의 꼭 다물어져 있다”(136면)는 표정 묘사는, “그녀의 내면의 마음이 자신이 보고있는 것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그녀가 거기 있는지, 실제로 의식적으로 거기 존재하는지가 의문스러웠다”(138면)는 작가의 진단과 조응한다. March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그녀를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의 소유자”로 만드는지는 아무도, 특히 그녀 자신이 알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 여우와의 들연한 마주침은 여우가 그녀 자신을 ‘알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깨우침을 가능하게 한다. 여우의 등장은 농장생활에서 흔히 있을 법한 일인데 작품의 묘미는 이 여우를 주동기로 삼아 Henry와 연결시키고 March의 두번의 꿈의 모티프로 활용하는 전개양상에 있다 하겠다. 유사한 주제를 다룬 “You Touched Me” 보다 이 작품을 더욱 복잡하고 깊이있는 것으로 만든 데는 흔히 무의식의 영역이라 할만한 꿈을 도입하여 인물의 숨은 생각과 원망을 변주하는 기법이 크게 작용한다.<sup>10)</sup> 사실 여우와 그와 연관된 Henry의 이미지의 활용이 없었다면 “평이한 사실들에 충실하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고 싶어”(190면)하는, 때로는 두려움에 차고, 때로는 냉소적인 March가 그저 지속되는 모든 것이 ‘삶’은 아님을 깨우치는 과정이 설득력있게 그려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March에게 여우와 동일시되는 힘을 가진 Henry는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농장의 두 여자의 생활이 갖는 문제점을 간파한다. 이는 물론 농장에서 일한 젊은이의 관심을 그에 걸맞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아, 그런데, 우리는 일만 하고 사는 삶을 믿지 않아요.’ 마아치가 끼어들었다.

10) Stanley Renner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문학사상 가장 특기할 만한 심리적 드라마중 하나”로 평한다. Renner, “Sexuality and the Unconscious: Psycho-sexual Drama and Conflict in *The Fox*”, *The D. H. Lawrence Review*, Vol. 21, No. 3(Fall 1989) 246면.

‘그래요?’ 헨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민감하고 젊은이다운 웃음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의 시선은 구석자리의 눈에 띄지 않는 이 여자에게 한결같이 쏠려 있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밀친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거죠?’ 그가 말했다.

‘아, 모르겠어요.’ 마아치가 간단히 대답했다. ‘아마 일꾼으로 고용살이를 해야겠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여자일꾼을 구하는 수요가 없을 걸요.’ 젊은이가 말했다.

‘아, 그건 두고봐야 겠죠. 그래도 아직은 좀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구슬프고, 반은 슬프고, 반은 냉소적인 무관심을 담고 마아치가 말했다.

‘여기엔 남자가 필요해요.’ 젊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밴포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말조심해요.’ 그녀는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효율적이라 생각해요.’

‘아.’ 마아치의 느리고 구슬픈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효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농사일을 하려면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 매달려야 해. 아예 짐승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요, 그거예요.’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들은 거기 전념할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마아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요.’(146면)

이 대목은 일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일과 나아가 삶에 대한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두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고 싶어” 하는 Henry의 눈에 March와 Banford의 생활은 견뎌내야 할 어떤 것, 그러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의식적으로 ‘분투’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비친다. 이런 생활에 지친 둘은 취미활동, 독서 등 “모든 다른 것이 다 끝장날 때면”(160면) 서로의 생각을 알아맞추는 돈내기를 할 정도로 극도의 권태에 빠져있다. Banford에게는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외딴 농장생활이 Henry에게는 “충분히 생기찬” 것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일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다. 일이 언제나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Carlyle식의 노동관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가한 Lawrence이니만큼<sup>11)</sup> ‘삶이란 단지 뼈빠지게 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Banford의 항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을 ‘삶다운 삶’의 핵심적 일부이자 그 표현으로 보지 않고, 단지 해치워야 할 기계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들의 ‘삶에 대한 태도’이다. 이는 또한 자신의 깊은 자아의 요구를 억누르고 외형상의 생활에 안주하려는 태도이기도하다. 가령 March가 “기계적인 생각”(automatic intelligence 139면)이 미치는 대로 가축을 돌보고 “그(Henry)가 말하는 것, 혹은 삶이 제안하는 모든 것에 자제하며 조롱하려는”(176면) 태도는 Banford식의 삶이 “안전하고 정상적”이라는 March의 고집에서 비롯된다. Leavis는 이 대목을 중시하며 일이 “인간적 중요성”을 상실하고 단지 임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현대의 상황과 연관짓고, 이를 통찰하고 새로운 관계를 이룩해가는 이런 소설의 성취가 현상황에서는(설령 Lawrence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sup>12)</sup> 그런데 그의 논의에서 특이한 점은 Henry와 March 등의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남녀성차(sexual difference)와 남녀 서로간의 필요(mutual need)와 연관지우는 점이다. 이같은 Leavis의 입장은 그가 *D.H. Lawrence: Novelist*에서 개진한 해석보다 한층 더 나은 것으로, 여성론자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동조적인 평자들보다도 확연히 다르다. 가령, 이 작

11) *Phoenix*, 421-26면 참조.

12) Leavis, *Thought, Words and Creativity*(London: Chatto & Windus, 1976), 147-156면 참조.

품에 쏟아지는 ‘남성우월주의’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Mara Kalnins의 경우도 작가를 변호하는 근거로 Henry의 미숙함이나 그와 작가간의 거리를 전제하는 등 작품의 주제를 “남녀간의 균형”으로 한정한다.<sup>13)</sup> 문제는 작품의 맥락에 따라 March와 Henry가 이룩해가는 관계를 짚어보며 판단해야 할 것이다.

## 3

March가 Henry에게 이끌리는 것은 여우와의 만남이나 첫번째 꿈 속의 여우의 울음소리가 준 충격 등 여러 디테일들로 예비되어 있다. 그녀가 낚을 놓고 있을 때 여우를 만났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Henry의 시선을 느꼈을 때, “March는 여우의 검은 눈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민활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알아보는 듯한 불꽃이 그가 고개를 돌릴 때 그의 눈으로부터 튀어나와 그녀의 영혼 속으로 깃드는”(151면) 것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을 억누르는 데 익숙한 그녀는 Henry의 존재를 회피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숨으려 한다. 그러한 March를 “알아보고” 그녀쪽으로 “필연적으로 촉발되는” 힘을 느끼는 Henry를 작가는 마치 여우와 같이 날쌔 ‘사냥꾼’의 이미지와 비유를 구사해 그린다. (그가 한밤중 여우를 잡는 모습이나, Banford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무 베는 장면의 묘사에서 Henry의 이런 면모가 여실하게 포착된다) March와의 결혼을 결심하는 장면에서도 사냥의 모티프가 동원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냥에 대해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가령 약한 존재에 대한 살상이라든가 그와 동전의 이면인 동물의 무기력함을 전제하는 발상을 깨뜨리는 사유가 펼쳐진다.

사냥을 나갈 때는 무얼 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게 중요한 법이다. 그때는 섬세하고 교활하고 완전히 운명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해. 그건 마치 운명처럼 실현된다. 자신의 운명이 사냥하려는 사슴의 운명을 따라잡고 결정한다. 무엇보다, 심지어 사냥감을 보기 전에 조차도 최면술과 같은 기이한 투쟁이 있다. ……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미묘하고, 심오한, 의지들간의 투쟁(battle of wills)이다. …… 총알이 명중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 사슴의 운명 속으로 날카롭게 투사되는 것이다. 그것은 한 판의 영민한 속임수가 아니라 지고의 소망처럼, 지고의 의지력의 행사(a supreme act of volition)처럼 일어난다. (153-54면)

아무리 March가 토끼처럼 의심 많고 도망가기를 잘한다 해도 자신이 배우자로 삼고 싶은 여자를 사냥감에 비유하는 Henry의 태도는 Millett와 같은 여성론자들의 도마에 오르기 쉬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냥에 임하는 Henry의 자세는 단지 ‘효율의 문제’로 일을 대하지 않는 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일맥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이런 그를 “농사꾼도 부대에 불박혀 있는 군인도 아닌, 사냥꾼의 기백을 가진 이”라고 부연한다. 통념적인 사냥행위가 어울리는 군인의 유형이나 어떤 류의 모험이 빠져 있는 농부(주어진 땅을 가는 농부가 husband의 어원인 것도 의미심장하다)의 안정이 Henry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도 이 비유의 적실성을 더해준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 판의 영민한 속임수’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대와 타협하는 태도가 전혀없이 필요하다면 ‘의지의 투쟁’을 볼사

13) Mara Kalnins, “Lawrence’s Men and Women: Complements and Opposites”, *Problems For Feminist Criticism*, ed. Sally Minogue(London: Routledge, 1990) 167-70면 참조.

하는 Henry의 운명을 건 싸움이야말로 생명계의 핵심적 원리이자, 자기도 모르게 여성을 대상화하는 태도가 배어 있는 Banford같은 인물로서는 간파하기 힘든 생동하는 삶의 진면목이다.<sup>14)</sup>

사냥에서와 마찬가지로, March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Henry의 적극적 자기투여는 상대의 변화뿐 아니라 자신의 극적인 변신과 성숙으로 연결된다. 특히 스물남짓 된 젊은이로서 자신의 ‘짝’(mate)을 얻으려는 그의 결단에는 젊은이다운 신선함과 아울러 성숙한 존재의 진지함이 깃들어 있다. 두번째 본격적인 청혼을 하게 되는 날 저녁, 그는 평소와 달리 치마를 입은 March를 보고 “그녀가 갑자기 수염을 길렀다해도 더 놀라지 않았을 만치” 충격을 받는다.

아니, 그녀는 새로운 존재였다. 그녀는 전혀 다른 어떤 존재였다. 항상 엉덩이 부분이 넓고 무릎까지 단추가 채워진, 갑옷같이 튼튼한 거친 천의 바지에다 갈색 가죽각반에 두툼한 장화를 신은 그녀를 보면서, 그녀가 여자의 다리와 발을 가졌다는 사실이 한번도 떠오르지 않았었다. 이제야 그 사실이 덮쳐왔다…… 이상하게, 갑자기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어른남자임을 느꼈다. 그는 남자의 책임감의 그 모든 엄중한 무게를 지닌 남자임을 느꼈다. 기이한 평온과 엄중함이 그의 영혼을 엄습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남자의 운명의 막중함을 지닌 남자됨을, 평온함을 느꼈다.(181면)

여기서 ‘남자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Henry가 ‘소년’에서 ‘남자’로의 전면적인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 March의 여성됨에 눈뜨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상대적인’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남성이라는 완결된 ‘주체’가 있어 그의 대상인 ‘여성’을 만난다기보다, 여성의 진정한 여성됨을 발견해 나가는 곡진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온전한 책임의 담지자인 남성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이는 얼핏 인간의 성적 정체성의 형성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포스트모던 여성론의 주장과 유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로렌스가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본능’으로서의 성이나 생식을 위한 ‘욕구’로서 성을 한정하는 발상을 강력히 비판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양자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로렌스의 성에 대한 사유와 통념적인 본질론과의 차이점이 여성론자의 입장에서는 의외라면 의외일텐데, 남녀사이의 필연적 관계맺음의 과정을 통해 남녀 각자가 온전한 성적 주체에 이른다는 생각만큼은 이 소설에서도 확인된다.<sup>15)</sup>

14) Henry에게 빠져있는 March를 개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의 인물평을 늘어놓는 Banford는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저버리고만다는 통념적인 연애관계로 March-Henry관계를 못박는데, 이러한 태도에는 Henry에 대한 계급적 편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여성의 주체적 개입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여 은연중에 여성을 대상화하는 태도가 깔려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March의 개성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이 작품을 남성우월주의의 설교로 보는 Millett같은 평자의 입장도 크게 보면 Banford식의 여성관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Banford의 태도는 아래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 Oh, Nellie, he'll despise you, he'll despise you like the awful little beast he is, if you give way to him. I'd no more trust him than I'd trust a cat not to steal. He's deep, he's deep, and he's bossy, and he's selfish through and through, as cold as ice. All he wants is to make use of you. And when you're no more use to him, then I pity you.”(168-69면)

15) 성에 대한 Lawrence의 생각은 그의 작품과 산문 등에서 폭넓게 개진되고 있지만 여기서 특히 염두에 둔 대목은 “Sex vs. Loveliness”, *D.H. Lawrence: Selected Essays*, 13-14면이다.

Henry와 March간의 관계를 보는 관점 가운데 이와 관련해 검토해볼 만한 것이 '정신분석학적' 접근방식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작품은 주제와 기법의 특성 때문에 최근 활발한 이런 류의 비평의 단골메뉴가 되는 듯하다. 가령 Stanley Renner는 "심리적 성의 상징성" (psychosexual symbolism)<sup>16)</sup>의 차원에서 이 소설이 "남자와 여자에게 성적 충동이 촉발·흥분·절정으로 가는 과정을 구조적으로 극화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에게 Henry와 March의 갈등은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내면적 금지와 억압간의 갈등으로 해석된다. 그는 성적 충동의 생물학적 견해에 반대하는 서구적·여성론적 입장이 두 남녀의 관계의 성적 특징에 놀랄만큼 눈멀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여우로 대변되는 Henry의 남성적 공격성이 의식과 금지의 상징인 Banford의 죽음과 상쇄되어 마침내 Henry-March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여기서 Renner의 해석을 문제삼는 까닭은 그가 이 소설을 "원형적 남녀 성투쟁 이면에 있는 심리적 힘들의 극화"로 봄으로써, 구체적 인물을 원형으로 환원하고 그 결과 남녀에 대한 통념의 재확인으로 빠지고 마는 위험때문이다. 특히 March같은 특이한 인물이 관념적 여성 일반으로 환원될 때는 그 인물 특유의 문제와 그것의 해결과정의 의의가 모두 실종되고 만다. 더욱이 Renner는 그가 상정한 여성론의 입지와 달리 생물학적 근거에서 출발했음에도 성을 단지 '심리의 드라마'로 추상화하는 점에서는 최근의 '정신분석학적 여성론'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협의의 생물학주의와 심리주의가 살아있는 개인을 추상화하여 '인과법칙의 틀'에 맞추려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그리하여 Renner는 Banford의 죽음도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March의 마지막 부분의 상태도 성적 금지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탓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만다.<sup>17)</sup> Henry와 March의 관계는, 그러므로, 상투적인 '남만적 사랑'이나 협의의 '성

---

*Phoenix II*, 527-28면에도 실려있다. "Science says it(sex) is an instinct: but what is an instinct? Apparently an instinct is an old, old habit that has become ingrained. But a habit, however old, has to have a beginning. And there is really no beginning to sex. Where life is, there it is. So sex is no 'habit' that has been formed ..... Science has a mysterious hatred of beauty, because it doesn't fit in the cause-and-effect chain. And society has a mysterious hatred of sex, because it perpetually interferes with the nice money-making schemes of social man. So the two hatreds made a combine, and sex and beauty are mere propagation appetite." 이런 구절은 Lawrence의 '삶'이나 '개체'에 대한 사유와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March가 아니라 Banford가 지극히 상투적인 '여성성'의 소유자로 그려지는 것도 Lawrence와 본질론적 여성관과의 거리를 보여준다.

16) Renner, 257면.

17) Renner보다 한결을 더 간간 심리학적 분석의 예로는 Claude Sinzelle의 "Skinning the Fox: a Masochist's Delight"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Deleuze의 억압이론으로 작품을 풀면서 자연을 상징하는 Henry의 에로스의 힘이 문명의 억압적 압력들에 의해 위협받는 이야기로 해석한다. 이 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오독이 Henry의 '남성적 책임감'에 대한 부분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가 March와의 관계의 막중하고 항구적인 성격을 깨달아 어떠한 선부른 성적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점을 이렇게 풀이한다. "..... he is sexually inhibited by his new feeling of responsibility. This feeling of responsibility is only a moral alibi: the 'new man' is a man 'without sexual love'." *D.H. Lawrence in the Modern World*, ed. Peter J. Preston and Peter A. Hoare (London: Macmillan, 1989) 170면.

애'(sexuality)와 다르며, 그 차이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이 작품을 읽는 성과이기도 하다. Henry가 “내 삶과, 그리고 당신(March)을 생각할 때면 그 둘이 함께 맞물려간다”(186면)고 고백할 때, 두 사람의 결합은 “온전하게 성취하는 삶으로서의 결혼“(marriage as the whole fulfilling life)<sup>18)</sup>이 된다 하겠다.

## 4

그러나 두 사람이 결합에 이르는 데는 여러 곡절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가장 명시적으로는 March와 Banford간의 깊은 연대의식이 있다. “이 여자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179면)에 Henry가 놀라는 것처럼 두 친구가 평범한 친근함을 넘어 서로를 염려하고 의지하는 정도는 특별한 집착에 가깝다.(167-69면) Henry의 관점으로 시장에서 돌아오는 Banford를 마중하는 March의 모습을 그린 다음 대목은 숨어서 관찰하는 Henry의 여우같은 ‘교활함’과 그의 심리 투사도 흥미롭거니와, 때로는 유머러스한 묘사와 때로는 건조한 대화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적시하는 작가의 이야기 솜씨를 흠뻑 느끼게 한다.

그녀(Banford)가 능선을 천천히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녀가 발걸음마다 끝없는 나락으로 미끌어지고 있다 해도 그(Henry)는 꾸러미 든 그녀를 도와주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하, 그런데 저기서 마아치가 왔다. 바지에 긴 옷을 입고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그녀가 달려왔다! 작은 밴포드를 구하려는 큰 염려와 바램에, 때로는 몇걸음씩 뛰기도 하며 바쁜 발걸음으로 언덕 아래로 성큼성큼 달려왔다. 소년은 분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저 여자 도랑 건너뛰고, 마치 집에 불 난 것처럼 뛰는 것 좀 보라, 고작 저 아래에서 기어오는 짐과 초라한 물체에 가기 위해! 그러니, 그 밴포드는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 그리고 마아치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노란 국화다발만 빼고 모든 꾸러미를 다 받아들였다. 노란 국화 — 저 밴포드는 이것만 여전히 들고 갔다!

(중략)

‘왜 나도 꾸러미를 좀 들게 하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에 묘하게 애처로운 걸림이 들어 있었다. — 그러자 마아치의 강건하고 주저함이 없는 대답이 들려왔다.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내 걱정은 하지마. 너는 너 하나만 건수하면 돼.’

‘그래, 다 좋아.’ 밴포드가 성마르게 말했다. ‘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는 아무도 자기 생각을 안해준다고 내내 속상해하지.’

(중략)

‘…… 네가 어떻게 그리 값싸게 구는지 난 알 수가 없어. 네가 어떻게 것처럼 자신을 천하게 낮추는지 상상도 못하겠어.’

‘천하게 낮춘 적 없어.’ 마아치가 말했다.

‘그럼, 대체 그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워 애가 그렇게 건방지고 뻔뻔하게 다가와서 널 바보취급 하도록 내버려두는데 말이야. 네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 개가 나중에 널 얼마나 존중해줄 거 같니? — 세상에, 네가 그와 결혼한다 해도, 난 네 입장이 되진 않을거야.’ (My word, I wouldn't be in your shoes, if you married him.)

‘물론 그렇지 않겠지. 내 신은 너한테 너무 크고 전혀 우아하지 않으니까,’ 다소 영똥하게 빈정거리

18) Leavis, *D.H. Lawrence: Novelist*, 316면.



는 투로 마아치가 말했다.(177-78면)

이 대목은 모든 짐과 수고를 기꺼이 떠맡으려는 March의 진심은 그대로 전해지면서,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Banford의 손에는 생기없고 진부한 ‘노란 국화’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곧 둘 사이의 삶이 ‘태평한’ (insouciant)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오히려 그녀가 친구의 행복을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그리고 “행복이라는 치명적인 꽃”(the fatal flower of happiness 203면)을 꺾어주려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고통의 가중과 허위의 꽃일 뿐이다.<sup>19)</sup>

한편 Henry와 결혼약속을 했다는 말을 들은 후 Banford가 보이는 반응은 Banford-March 관계가 심상한 친구 사이가 아님을 보여준다. Banford가 자신을 “천하게 낮추지 않으려 너무도 애썼다”고 할 때 Henry나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그녀의 계급적인 우월감을 읽을 수 있고, 그녀가 통념에 기대어 Henry의 부정성을 March에게 설득할 때는 친구에 대한 염려로 봐줄 수도 있으나 작품이 전개될수록 그녀의 간섭은 단순한 친구의 조언을 확연히 넘어선다. 오히려 March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의 밀고 당기기가 시종일관하는 양상이며, 이렇게 볼 때 위의 Banford의 여러 발언들도 March와의 관계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된 적극적 반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Henry가 왔을 때 마치 누이처럼 돌봐주고 잡담을 나누던 Banford의 태도가 두 남녀의 사이가 가까와질수록 적대적이 되는 것도 범상하지 않다. 특히 Henry의 “육체적 존재”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March와 달리 그녀는 Henry의 “알지 못할 삶의 열기”(a curious heat of life, 158면) 자체를 못견뎌한다. 그러나 이러한 March-Banford 관계를 Millett처럼 손쉽게 ‘동성애’ 관계로 규정하기에는 작품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이미 *The Rainbow*(1915)에서 Ursula-Winifred 관계를 심도깊이, 나름대로의 심리적 추이까지 그려낸 작가의 작품답게 여성간의 내밀하고 심리적인 관계를 통찰한 깊이는 여기서도 발견된다고 하겠다. 다만 Ursula-Winifred 관계가 명시적인 동성애라면 Banford-March의 연루 관계는 심리적이고 ‘억압된’ 양상을 띠었다고 하겠다. 이는 두 작품의 인물간에 상당한 문화적·계급적 차이가 있음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The Rainbow*의 세계가 이 중편보다 근대적 경험을 한결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간 March-Banford 관계를 명시적인 동성애로 보는 태도가 ‘급진적 여성론’의 편리한 구도 — 여성간의 모든 친밀함을 성애로 보는 — 인 반면, 이 관계의 동성애적 지향성에 애써 눈감는 것도(Mara Kalnins) March의 변모나 작품 전반의 구체적 문제를 단순화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Henry가 귀대하자 March는 “모든 현실적인 것”이 사라짐을 느끼고 다시 “내 자리는 Jill (Banford)의 곁”이라고 Henry와의 관계를 부정하고자 한다. 그녀는 자신을 ‘아는’ 이는 Banford이고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살아있는 한 이것도 삶”(190면)일 것이라 고집한다. Henry의 존재가 사라지자 March에게는 어릴적 꿈꾸던 ‘낭만적 사랑’이나 Banford에게 기울이는 의식적 노력이 요구되는 애정과는 전혀 다른 Henry와의 관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비친다. “자신의 진지함이 조롱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Henry로서는 문제의 진원이 Banford임을 간파하고 마침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으로 돌진하게 된다. 이 대목을 두고 대부분의 평자들은 Henry의 도덕성을 의

19) “You pluck flower after flower — it is never *the* flower”(203면).

심하거나 이를 작품의 주제마저 훼손하는 디테일로 판단하여 반감을 가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Banford의 개입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Banford는 위협을 경고하는 Henry의 말을 “거짓으로 걱정해 주고 그녀에게 자리를 옮기게 하는 것이 그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199면)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다 죽게 된다. 말하자면 두 사람간의 “의지의 투쟁”이 팽팽히 치달은 결과인 것이다. 물론 Henry가 실수로 Banford를 죽이게 된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그가 들거위를 쓸 때처럼 “날개에 맞았나, 죽었나? 죽었다!”고 속으로 부르짖을 때 그가 Banford의 죽음을 의도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정작 주목되는 바는 이러한 Henry를 변명하지 않는 작가의 어조에 있다고 하겠다. 여느 작가 같으면 이런 사건의 우연성을 강조하거나 주인공의 내면독백을 길게 활해해 자기변명의 기회를 주고, 혹은 그런 ‘비정상적 상태’의 ‘정상성’을 암시하려 했을 법하다. 그러나 로렌스는 정면으로 Henry를 옹호하는 어투를 구사한다. Henry는 Banford의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의 내적 필연성이 실현되고 있었다. 살아야 하는 자는 바로 그였다. 그의 뱃속의 가시가 뽑혀져 나왔다”고 간명히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은 Banford가 거듭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더욱 명시적으로는 March의 두번째 꿈을 통해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다만 작품의 내적 논리에 충실하면서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담담하게 혹은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작가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점이라 하겠다.

## 5

Banford의 죽음은 이 소설 결말부분의 Henry-March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려는 하나의 예비적 단계로 — 물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 비친다. 그런데 결혼 이후의 관계를 다룬 다섯 페이지에 걸친 결말부분에 대한 평가도 그 논거는 다양하지만 부정적이기는 일색이다. 가령 Monroe Engel은 소설에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대목이며 개작시 새로운 류의 남녀관계를 보여주려는 로렌스의 의도가 개입하여 ‘실패’하게 되었다고 본다.<sup>20)</sup> 그리고 Mara Kalnins는 결말부분이 작가의 의도의 개입이라기보다는 자유간접화법으로 씌어져 있음에 주목하여 Henry의 목소리가 드러난 대목으로 보고 작품을 변호하려 하는데, 이 경우도 예술적 실패를 전제하기는 마찬가지라 하겠다. 그런데 여태껏 인물들의 갈등을 그려낸 치밀하고 사실적인 방식에서 어조가 급격히 전환되어 파격적일 만큼 인물들의 내면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환에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두 사람의 관계가 농촌의 중하류층 사람들의 대화로서 포착하기에는 — 지면이 제한된 증편이기도 하거니와 — 어려운 점이 있을 정도로 남녀관계의 핵심적 성격을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혼 후 March는 Henry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 이전의 성향의 연장이면서도 — 국면을 맞는다. “그녀는 그를 떠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와 더불어 자유롭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그들이 더불어 자유롭기에는,

뭔가가 빠져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일렁이는 대신에, 마치 상처를 입은 듯 고개를

20) Monroe Engel, “The Continuity of Lawrence’s Short Novels”, *Twentieth Views: D. H. Lawrence*, ed. Mark Spilka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3) 95면.

수그리고 피흘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와 손을 잡은 채 멀리 바다를 보며 오래 앉아 있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둡고 텅빈 눈에는 상처같은 것이 담겨 있었고, 얼굴은 약간 야위어 보였다. 그가 말을 걸 때면 그녀는 희미한, 전에는 없던 미소로, 옛 방식의 사랑으로는 죽었으나 새로운 방식의 사랑으로 살아나지는 못한 여자의 이상하고 떨리는 열은 미소로 그를 돌아보곤 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뭔가를 해야겠다고, 어떤 방향으로든 힘을 주어야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할 일도, 힘을 줄 방향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새로운 사랑이 자신에게 부과한 짐을 아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가 만일 사랑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사랑하며 애써야 했다. 그녀는 사랑에 있어 애써야 하는 우리 시대의 지친 요구를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 사랑에 있어 더 이상 애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애쓰는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랑이 그의 이마를 어둡게 만들었다. 결단코, 그는 그녀가 자신을 향해 그녀의 사랑을 애써 발휘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으려 했다. 결단코, 그녀는 수동적이어야 하고, 묵종해야 하고, 사랑의 표면 아래로 침잠해야 했다. 그녀는 어두운 바다 속에서 예민하게,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모든 섬세한 수근을 부드럽게 조류에 내뿜은 채, 물 밑에서 영원히 섬세하게 일렁이며, 살아 있는 동안은 결코, 결코 물 위로 떠올라 불쑥 내다보지 않는, 그녀가 배에서 내려다보는 해초같이 되어야 했다. 해초가 죽었을 때에만 시체가 되어 수면 밖으로 썰겨 나오듯, 결코, 결코 그때까지는 물 위로 내다보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언제나 침잠해 있고 항상 파도 밑에 있었다. 파도 밑에서 그것들은 강철보다 더 강한, 힘찬 뿌리를 가지며, 물결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릴 때 더 강인하고 위협적일지 몰랐다. 물 밑에서 그것들은 지상의 저항하는 참나무보다 더 강하고 더 파괴하기 힘든 존재일지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언제나 물 밑에 있었다. 그리고 여자이므로 그녀는 반드시 그래야 했다.(201-202면)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March의 영혼이 무언가에 깊이 상처입었다는 것이고, 그 상처는 Banford의 죽음이 준 충격과 같은 외부적 사건때문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완벽하게 상대를 사랑하고 염려하려는 March의 오랜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습성이 오히려 긍정적이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많겠지만 이는 작품의 초입부터 제시된 March의 삶의 황폐함에는 물론, Henry의 적극적 추동 이후에도 이들이 “더불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의식적 노력이 관념화 되어 온전하고 자발적인 인간관계를 가로막은 것이 서구역사의 뿌리깊은 문제라 생각한 로렌스의 사유를 떠올리면 March라는 인물은 역사적 대표성마저 띠게 된다.<sup>21)</sup> 또한 March가

21) ‘행복’이나 ‘사랑’ 등 애초에는 선의의 발상들이 점차 주어진 ‘이상’으로 관념화되는 현상에 대한 Lawrence의 비판은 신랄한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의 과제로 남겨두겠다. 다만 “Introduction to These Paintings” 등의 글에서 Lawrence는 서구역사가 ‘mental consciousness’의 방향으로 치달은 통폐를 개탄하면서 이는 인간에 대한 관념적 파악이 심화되는 과정과 다름없다고 본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이 과정이 여성에 미친 해독을 이렇게 적고 있다. “When Eve ate that particular apple, she became aware of her own womanhood, mentally. And mentally she began to experiment with it. She has been experimenting ever since. So has man . . . . She can’t stop having an idea of herself. She can’t get herself out of her own head. And there she is, functioning away from her own head and her own consciousness of herself and her own automatic self-will, till the whole man and woman game has become just a hell, and men with any backbone would rather kill themselves than go on with it — or kill somebody else.” *Fantasia of the Unconscious*, 85-86면. 그러므로 여성이 “여성에 속한 진짜 인간”(a real human being of

Banford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 분투하는 여자로 남는 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파국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대목은 단순히 '이성관계'를 치유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두번째 중요한 점은 여자의 상태를 바다 속의 해초에 비유한 것의 적실성 문제이다. 우선은 이 비유가 두 사람이 Cornwall 바닷가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해야 하겠다. 그리고 March가 "사랑에 있어 애써야 하는 우리 시대의 지친 요구"에 순응하는 상태가 '자의식적'인 것이고, 여우의 울음과 Henry의 뛰는 심장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느끼던 때가 그녀의 무의식적 원망의 표출이라면, 물밑으로의 '침잠'은 후자를 인정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하겠다. 사실 이러한 '침잠'은 March로서는 '전혀 다른 존재'로의 새로운 거듭남이라 할 만한데 여기서는 그 상태가 "강력한 뿌리"로 비유되는 개체성 자체를 전제하고 있음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살펴본 연후에도 March의 내면적 번뇌에 따른 두 사람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March와 Henry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데는 그녀로서는 '깨어 있기'를, 그로서는 '잠들기'를 바라는 어떤 상태가 여전히 지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는 March의 '독립적 자아'의 문제를 그녀의 여성됨과 연결짓는 작가의 시선과 얽혀 복합적으로 제시된다.

그녀는 자기 운명을 이 청년에게 맡겨야만 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는 그 이상을 원했다. 그는 그녀가 아무런 저항없이 자신을 내맡기고 그에게 잠기고 침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 그녀는 최후의 이정표에 다다른 여자처럼 가만히 앉아 주시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보고, 알고, 이해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홀로 있기를 원했다. 다만 그를 자기 곁에 둔 채로.

그리고 그는! 그는 그녀가 더이상 주시하기도 더이상 보기도 더이상 이해하기도 원치 않았다. 그는 동양인들이 여자의 얼굴에 베일을 씌우듯 그녀의 여자로서의 정신에 베일을 씌우고 싶어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자신을 내맡기고 그녀의 독립적인 정신이 잠들게 하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로부터 모든 노력, 그녀의 존재이유 자체인 듯한 모든 것을 앗아버리고 싶어했다. 그는 그녀가 순종하고, 내맡기고, 그 모든 분투하는 의식으로부터 아무 생각없이 벗어나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의식을 앗아버리고 그녀를 그저 그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했다. 그저 그의 여자로. (204면 인용자 강조)

이 문단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우선 "최후의 이정표에 다다른 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지도 알지도 이해하지도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좀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March의 이전 방식의 삶의 여행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이 '최후의 이정표'가 갖는 일차적 의미라면,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 자신을 추동해야 할지 모를 막다른 단계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그 은유적 뜻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March는 여태껏 자신의 상이라 믿고 분투해 온 '아상'의 끄트머리와 그런 '애쓰는 사랑'이 무용하고 포기해야 할 것임을 깨닫는 경계에 위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Henry의 요구 — 자유간접화법을 활용하는 이 대목은 March가 본 Henry의 생각을 작가가 정리한 것이기도 하다 — 는 그러한 '자아'의 '지친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는, 이제는 이정표 자체를 미리 세우지 말고, 그럴 필요조차 없는 존재의 단계로 뛰어오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그를 곁에 두고 홀로 있겠다"는 March의 '독립적인 정신'은 자신의 짝으로부터도 '아상'

---

the feminine sex. Phoenix II, 536면)이 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은 서구역사 전체의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 방향을 돌려놓는 것과 같은 차원의 지난한 것이기도 하다.

(individuality of ego)<sup>22)</sup>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방식의 사랑” 잔재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March가 ‘독립적인 정신’으로 타인을 대했을 때 Banford와의 관계에서처럼 오히려 서로에게 매이는 ‘종속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March가 매달려온 ‘여성의 독립’은 개개인이 고립되고 완결된 실체라는 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상통하며 인간됨의 기본요건인 ‘관계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하겠다.<sup>23)</sup> 그런데 만약 이 ‘관계성’의 축이 무너진다면 물 위로 떠오른 해초처럼 ‘I am I’의 개체적 존엄성도, 혹은 ‘individuality of blood’의 자연스러움도 지켜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말부분의 서술은, 그러나, 상당 정도 March와 Henry의 상태를 적실히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의 결말을 볼 구체적 계기를 갖지 못하고(그런만큼 결말부분의 서술이 추상화되기도 한다), “서쪽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떠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쩌면 앞으로의 상태가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고, 현상황도 Henry로서 타개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가 더 “안달나”(chafed)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이루어나가야 할 이후의 모습은 “The Captain’s Doll”이나 다른 장편과 더불어 살펴볼 때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특정한 문맥에서 읽어야 할 필요가 커지는 셈인데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문제삼을 만한 일반화된 의도를 담고 있지 않다”는 Leavis의 애초의 지적<sup>24)</sup>은 끝까지 해소되지 않은 March의 갈등에 비춰봐도 아직 유효하다. March의 변모과정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그 의의를 그것대로 포착하면서도, 변모의 궁극적 추이를 냉정하게 미완의 것으로 남겨둔 점 또한 이 작품의 성과라 하겠다.

22) “..... Love Was Once a Little Boy”. *Reflection on the Death of a Porcupine*, ed Michael Herbert(Cambridge: Cambridge UP, 1988) 341면. 이 글에서 ‘individuality of ego’와 ‘individuality of blood’ 개념 참조.

23) *Be thyself!* is the grand cry of individualism. But individualism makes the mistake of considering an individual as a fixed entity: a little windmill that spins without shifting ground or changing its own nature. And this is nonsense. When power enters us, it does not just move us mechanically. It changes us. “..... Love Was Once a Little Boy”, 344면.

24) Leavis, *D.H. Lawrence: Novelist*, 320면.